

만남

2021년 8월
통권 199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결국 인내가 모든 것입니다-----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4
교리	교리 톡톡-----	7
영적 상담	-----	10
보물 창고	-----	12
슬기로운 신앙	-----	14
축일과 전례	-----	17
헌납금 납부자 명단	-----	18
50주년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쏠신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결국 인내가 모든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지우고 싶은 기억들 한두 가지 썩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때 어떻게든 참았어야 했는데,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 오랫동안 쌓아왔던 점수 다 깎아먹은 기억 말입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그 순간을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서로 큰 상처를 입고, 두고두고 부끄럽고 면목 없는 흑역사는 수시로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도 잊어먹고 잘 지내다가도 불현 듯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자다가도 크게 한숨을 푹푹 쉰니다. 괜히 죄 없는 이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발로 찹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외칩니다. “그때 내가 대체 왜 그랬지? 정말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신 위대한 대성인들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똑같이 어처구니없는 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역대급 과오를 범했습니다.

급하고 과격한 성격 자제하지 못해 일을 저지르고서는 두고두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마침내 인내의 최고봉에 올라간 분들이 성인들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타고난 결함과 결핍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마침내 자신을 극복하고 벗어나는데 성공한 성인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고합니다. “결국 인내가 모든 것입니다.”

골고타 언덕에서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극한의 인내를 앞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9)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안에서 뭔가 대단한 것들을 꿈꾸지만 현실을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모두 공감하듯이 우리네 인생사 안에서 순풍에 돛 단 듯한 나날은 불과 며칠도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좋아 죽을 것 같은 호시절은 찰나입니다. 내게 호의적인 주변 환경은 드뭅니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대치를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자주 인생의 역풍을 만나더라도 마음 크게 먹고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 나를 크게 낮추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과 타인이 나를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를 그들과 맞추고 나를 보다 넓히고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노력의 기초요 첫 출발점은 인내입니다.

무엇을 인내할 것인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누구에 대해 인내할 것인가 성찰해 봐야겠습니다. 인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요한 6,41-51)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4장 “떡과 술의 형상에”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저희가 당신을 닮게 하소서.
- ❖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나이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6 41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42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45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46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 6 46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4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50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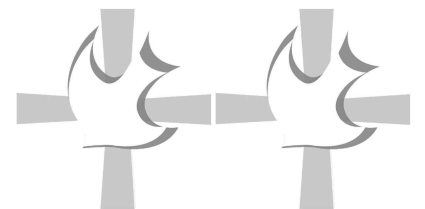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체를 모시면서 감동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살아있는 성체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콩을 심어도 제대로 된 콩을 내기 위해서는 알맞은 토양과 자연 조건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또 다른 성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6,42)

선입견이나 고집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성 안에 갇히기를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맙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6,51)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성체를 정말 살아 있는 빵으로 받아 모실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4장 “떡과 술의 형상에”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6. 세상을 살아있게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헌장은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한다.”(38항)는 표현으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마음 뭉클해집니다.

사목자로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한순간에 부끄럽게 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어설프게 경중으로 저울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당이 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우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하게 사목하는 신부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한복판에서도 분투하는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 앞에서 마냥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말에 “혼이 나갔다.”, “넋이 빠졌다.” 따위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심각한 상태를 뜻하는 말들입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거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또는 본래 뜻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에 접어든 뒤에 그 탓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는 말들입니다. ‘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혼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가라.’고 어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혼이 없는 세상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살아있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의 칭송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교회의 성화 소명은 평신도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하느님의 살아있는 알맹이 일꾼입니다. 평신도라 함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 참여하고 ...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교회헌장, 31항).

“성당은 고요하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직장, 학교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의 목소리로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느 신부님이 토로하셨습니다. 성당에서 교우들끼리 나누고 사귀고 섬기는 삶은 분명 하느님 보시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당신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신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복음적 가치로)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교회헌장, 31항)가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17. 교회의 상징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천주교회의 예식이 너무 복잡하고 형식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복잡하고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천주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성사생활에 있고, 이 성사에서는 많은 상징(symbol)들을 사용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은 말과 글, 몸짓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나타내려고 상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징이란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의미를 알아듣게 해주는 의사 전달의 한 요소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전례와 교리교육, 신앙생활에서 많은 상징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하느님의 신비와 신앙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징은 그 자체로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징 자체에서 어떤 영적인 힘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십자가는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표지가 된 이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상징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물은 생명을 움트게 하고 생기를 주며 때 묻은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한편,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휩쓸어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물을 생명과 죽음, 정화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불은 생명과 통하는 것으로 영혼의 순수함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 빛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생기를 줍니다. 전례 안에서는 하느님 앞에 마음을 다해 자신을 열어 보이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초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자 개개인의 열렬한 사랑과 거룩한 기쁨을 드러냅니다.

기름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상처 난 곳에 바르는 치료제와 녹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구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치유와 축성의 의미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빵과 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밥과 음료수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 음식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양식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18. 인간인 신부님께 어떻게 죄를 고백합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님께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일일이 고백해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부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무슨 권한으로 용서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치부를 어떻게 신부님이라고 해서 낱낱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막상 세례성사를 받고 신자가 되고 보니 ‘이것도 죄, 저것도 죄’라는 생각이 들어 신앙생활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어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특히 천주교회의 고해성사에 대한 의문이 많은 편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고해성사를 큰 짐으로 여겨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해성사를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를 받아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고 모든 죄와 벌에서 해방된 사람이나 세례성사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끊임 없이 속죄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은혜로운 방법으로 용서해 주시려고 고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는 기쁨의 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가톨릭 사제가 평범한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듯이, 사제의 사죄 권한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요한 20,23).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부여하신 이 권한을 사도들은 그 후계자들에게, 그들은 다시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전승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자신의 증세를 말하고 처방을 받듯이, 영혼의 병을 치료하려고 사죄권을 부여받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제는 고백자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반드시 절대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을 저지른 이가 고해성사를 통해 살인 행위를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사제는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질문

저는 어떤 잘못을 하고 나면 깊이 생각하고 후회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신중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 정작 제 마음은 그리 편하지가 않고 내적인 성장도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저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후회할 짓을 하고 나면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혹자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습관은 자아 성찰과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앉아서 좋지 않은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중추신경이 그런 생각을 현실로 인식해 태풍을 만난 배처럼 정신없을 정도로 어지러워집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와 불행은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들 때 생겨납니다. 만약 사소한 일에만 집중하면 더 큰 시야를 갖지 못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삶의 통찰력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행동 분석적 사고, 제한된 생각 같은 것들은 떨쳐 버리고 새로운 태도를 발전시켜 가면서 성장과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혀 길을 잃어서는 안 되며 그 생각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이란 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회복력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충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을 교정하는 정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억압적 환경에서도 정신력을 이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인생을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는 일은 인생에 대한 깊고 긍정적인 느낌을 사다리를 오르듯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침묵의 영성입니다. 참된 침묵 속에서 사람은 내적인 법칙과 연결이 되고 모든 힘은 정숙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힘이 무의식 속으로 숨어든 상태가 되어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전능한 절대 법칙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침묵의 영성을 실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고귀해질수록 같은 생각의 소유자들과 연결 고리가 형성되고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돕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교활한 생각을 가지면 똑같이 주위에 교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자신이 침묵의 영성을 실행하는지 알려면 평온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수공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침묵의 영성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헛된 짓을 자주 합니다. 혹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더 이상의 행동을 포기하고 수동적이 됩니다. 심지어 우울증, 불안, 신체적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묵의 영성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하였을 때 처음에는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지만, 시간이 가면서 깊은 상처를 남긴 고통스러운 감정이 좋은 면으로 달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정의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은 일시적으로 실패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당연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정의의 흐름을 따라 살려면 침묵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의 집회서에도 침묵을 강조합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지혜로워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이 너무 많아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 대답할 줄 몰라서 침묵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를 알고 있어서 침묵을 지키는 자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지만, 허풍쟁이와 바보는 놓친다.”(집회 20,5-7).



배호영명사



배호영명사

♥ 자유로 초대하시는 하느님(한민택 바오로 신부님)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양성 수업을 받던 저는 유학이라는 계기로 프랑스의 양성 과정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파리가톨릭대학교 내 가르멜 신학원은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유 교육학’이 그것입니다. 저의 영성 동반자이셨던 프랑수아 부스케 신부님께서 첫 면담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뿔(바오로의 프랑스식 표현), 너는 이 신학교에서 자유롭단다. 단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울 의무란다.”

저는 좀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자유로운데, 자유로워야 할 의무라니요! 그런데 신부님의 그 아리송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맘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공허한 마음이 생겼고, 이대로 살다간 사제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겠다는 위기감까지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유란 완성된 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고 성장시켜야 할 무엇이었습니니다. 수동적이고 틀에 박힌 생활방식에 익숙했던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영적인 사막을 겪으며, 영성지도 신부님의 도움으로 저의 생활 전체를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탐험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 머물며 후배 신학생들이 제가 겪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탐구를 잘 하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도록 동반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육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그 부르심에 자신의 응답을 드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거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자유이며, 사랑으로 일깨워지고 성장하는 자유입니다.

“뿔, 너는 자유롭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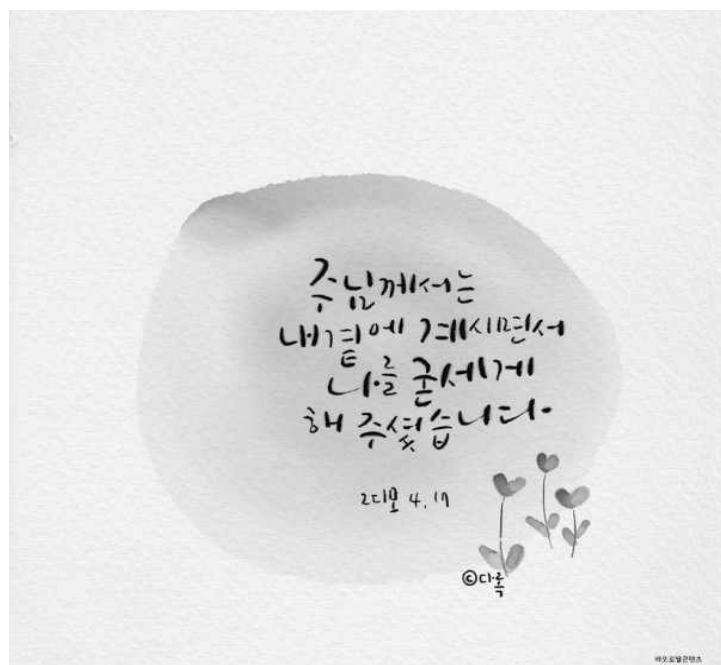
여기서 자유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유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는 ‘자유의 교육학’을 통해 그동안 자유롭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저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기대, 나만이 만들어놓은 틀, 고착된 생각, 그릇된 관념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제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아팠지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아주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오로야, 나를 따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저의 온 삶을 통해 들려온 주님의 부르심, 교회를 통해 전해진 그분의 강한 사랑... 그 부르심은 거센 바람도, 지진도, 불도 감출 수 없는 분명하고 또렷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체험하였고, 그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유롭게 그분께 응답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아닌 자유로운 ‘자녀’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의 교육 방법 역시 ‘자유의 교육학’입니다. 하느님은 각자를 자신의 고유한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온전히 자유롭게 응답하는 자녀의 사랑을 바라십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가요? 신앙을 통해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요? 나만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나만의 응답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나는 자유로운가요? 나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나요?



★ 작은 기도의 힘이 세다(김귀용 토마스 신부님)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하고 나오는데 주임 신부님께서 나를 부른다고 상상해봅시다. “자매님, 총구역장을 맡아주십시오.” 아, 형제님이라면 “형제님, 남성 총구역장을 맡아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떠올리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지금 잠시 상상해볼까요.

옛날부터 신학교와 수도원에서는 눈을 뜨며 일어나는 순간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열심히 신자들에게는 정해진 기도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성무일도, 시간전례). 이른 새벽에 바치는 독서기도와 아침기도, 미사, 3시경(오전 9시 기도), 6시경(12시 낮기도), 9시경, 저녁기도, 그리고 끝기도. 수도원에서는 종을 쳐서 기도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에 정해진 기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흔히 “기도생활 어떻게 하시나요?”라고 물으면 “하루에 몇 번, 모두 더해서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도, 기도생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생활이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언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생활하면서 하느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림에서 하느님을 멀리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하느님을 잊지 않으려는 삶, 매 순간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생활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신명 8,11 참조)

그러므로 정해진 기도시간에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습관, 곧 하느님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단련이 되어 기도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하느님을 기억하여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권고대로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 예수님”, 그 숨을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들 역시 나름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영광송을 바치고, 아침 저녁기도, 세 번의 삼종기도, 식사 전후 기도,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그리고 화살기도 등.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이런 기도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기억하는 연습! 연습은 당연히 실전을 위한 것일 터, 틈을 내서 자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글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당 신부님의 갑작스런 부탁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직장에 다니느라 주일미사 참례도 겨우 하는 형편입니다, 손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미활동에 막 재미를 붙여서 여유가 없습니다, 어느 모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타 등등 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이 떠오르던가요? 다른 그 어떤 상황, 어려움, 그 무엇에 대한 고려보다도 하느님을 떠올리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던가요? 나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의 그 짧은 틈새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먼저 떠올리기 위하여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서를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직원을 보내달라는 곳이 있어 회사에서는 저에게 그곳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새 근무지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급여도 삭감될 것이며,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그곳으로 옮겨줄 것을 제안했지만 다들 거절한 터에 마지막으로 제게 의사 타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설된 지 몇 년 안 된 부서인데 그 사이에 여러 명이 회사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나는 무슨 생각, 무엇을 고려하게 될까요?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당신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순간 미지의 곳으로 저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편했다면 이제부터는 부지런해져야 하고, 자신의 것을 덜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새 임지에 가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고, 제안했던 분들은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 출퇴근 시간의 늘어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등등 나를 먼저 걱정하는 여러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생각들이 떠오르기 직전에 먼저 틈을 내서 하느님을 찾아나서는 것, 이것이 하루 중 틈을 내어 기도를 연습한 실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여라.”(토빗 4,5 참조)

“저는 ‘오늘도 무사고 운전기사가 되게 해주시고, 제 차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이 제 차를 타시는 순간, 그리고 짐이 많은 손님, 술에 취해 도로로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는 손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손님을 보면 그 즉시 ‘제가 사랑해드려야 할 예수님께서서 저를 찾아오셨군요. 예수님, 당신을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의 그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 들기 전에,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 전에 얼른 틈을 내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이미 하느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2티모 2,8) 우리는 틈을 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기도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제 직장은 언덕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은 경사가 조금 심하고 응달 지역이라는 내리는 겨울철엔 언덕 아래 공터에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지난겨울 눈 내린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언덕을 올라가는데 택배차가 그 언덕에서 뒤로 미끄러진 상태로 헛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20대 젊은 택배기사는 몹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 몹시 당황스러우시지요? 예수님,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게 다가가 차를 일단 멈추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회사에서 삼과 염화칼슘한 포대를 들고 가서 눈을 녹인 다음 천천히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틈새기도, 우리의 아주 작은 기도는 내 앞에 계신 하느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8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리디아	손 수 민			현 영 애
8일	도미니코	김 대 현	18일	헬레나	이 미 용
		김 치 수			백(이)영자
		배 성 우			윤 혜 진
	도미니카	심(김)선옥	23일	로사	최 종 금
10일	라우렌시오	우 동 천		필립	해준 Heifler
11일	수산나	노 정 자 서 수 진	24일	바르톨로메오	남궁춘배
15일	마리아	정 마리아 김 춘 옥	27일	모니카	손 수 희 윤 예 진
18일	클라우디아	김(이)영희 이 지 연	28일	아우구스티노	이 석 우 이 철 우

❖ 8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리아	김일자(B) 황치숙(B)	18일	글라라	전영웅(H)
10일	테레사	고희지(B)		헬레나	박선자(H) 설윤자(O)
11일	수산나	강민정(B)	22일	셀리나	김신자(H) 김세린(H)
	알레나	배 알레나(B)	23일	로사	정지연(H) 최 랑(O) 백일순(H)
15일	마리 스텔라	정은찬(H)	27일	모니카	임소영(O)
	스텔라	부지우(O)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서선영(B)
	마리 스텔라	강주희(H) 김세담(H)			고찬연(B)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7월 18일 자 통장 잔액은 38.035,81 유로입니다(배구대회 잔액 4,449,43 유로 포함).

❖ 8월 성가번호 ❖

8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329	216	166	4
8일	24	221	153	437
15일	259	332	160	249
22일	337	342	164	451
29일	421	54	155	450

❖ 8월 전례 봉사 ❖

8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8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체칠리아)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X
15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2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X
29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권지연(안드레아) 이순자(마리아)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X

♥ 7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현금(7월 18일 기준)

강신행, 김경미, 강순행, 서세원, 우동천, 육종인,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영희 Eggerstedt,

* 계좌(7월 15일 기준)

권말숙 Rabe, 강일남, 김대현, 김동수, 허선애, 김유석, 김치수, 김진호, 김효정, 남궁춘배, 배성우, 백정선, 송문규, 이경규, 이공종, 이명원, 이성원, 이순임, 이석우, 오옥수 Ranitsch, 정정숙, 최성자, 최종금, 최현봉, 최아나벨, 허두옥, 허길조,

♥ 50주년 기념위원회의 회의 결과

2021년은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입니다. 50주년 기념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애초에 계획했던 기념음악회, 사진전시회, 그리고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은 취소되었습니다.

② 50주년 기념미사는 외부 손님의 초청 없이 함부르크 공동체와 흑시 지방공동체에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지방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조출하게 11월 21일 일요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이 교회의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2021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1월 21일 일요일로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지만 흑시라도 그때, 공동체 나눔이 가능하다면 미사 후에 나눔의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미사 중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③ 미사 중에는 지금껏 50주년을 위해 기도하셨던 모든 기도의 횟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④ 기념미사에는 지방공동체 가족분들, 브레멘, 오스나브뤼크, 하노버, 그리고 노르웨이 공동체 가족분들도 초대합니다.

⑤ 지금껏 50주년 행사를 위해 적립하였던 본당 예산 중 10,000유로를 함부르크대교구와 마산교구에 각각 5,000유로 씩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봉헌의 의미로 기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부르크대교구에는 위원장님과 회장님께서 주교님께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했으며, 마산교구에는 마산교구청 건립을 위한 헌금을 할지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기부를 할지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청합니다.

⑥ 5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는 발간하지 않지만 50주년 동안의 역사에 관해서는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시 50년 동안 특별한 행사나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김진호(프란치스코) 형제님에게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특별히 신심단체 활동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8월에도 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 8월부터 레지오 주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꾸리아와 신심단체 그리고 구역 모임은 없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모임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3. 평일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미리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8월부터 지방공동체 미사를 재개합니다. 미사 후 나눔은 없겠습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Q.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P.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8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연중 제18주일		
2	월			
3	화			
4	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5	목			
6	금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7	토	입추		브레멘 공동체
8	일	연중 제19주일		
9	월			
10	화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기념일, 말복		
11	수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12	목			
13	금			
14	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오스나브뤼크
15	일	성모 승천 대축일, 광복절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21	토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하노버 공동체
22	일	연중 제21주일		
23	월	처서		
24	화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25	수			
26	목			
27	금	성녀 모니카 기념일		
28	토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29	일	연중 제22주일		
30	월			
31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